



무주군, 농촌서 살아보기 체험자 장학금 전달

무주군 귀농귀촌 정책사업의 하나인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참가들이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60만 원을 기탁해 화제다.

29일 무주군청을 찾은 참가들은 황인홍 군수에게 “무주에서 거주하며 배운 재배기술로 생산한 농산물 판매수익금과 개인 기탁금으로 미래 세대들을 도울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 한다”라며 기탁금을 전달했다.

이에 황인홍 군수(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이사장)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을 통해 무주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귀농귀촌 하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며 “영농을 통해 구슬땀으로 민든 기탁금을 기부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 무주군에 우수한 인재가 많이 양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의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해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월남전 참전자회 삼도안보결의대회

무주군, 삼도(무주·김천·영동) 회원… 안보의식 강화 다짐

월남전 참전자회는 29일 삼도안보결의대회를 갖고 안보의식을 강화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체문화관에서 가진 삼도안보결의대회는 무주, 김천, 영동 삼도 회원들이 모여 삼도가 윤번제로 실시되며 이번 제16회 행사는 무주군참전 전우회에서 주관해 실시됐다.

삼도안보결의대회는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전호진 영동군지회장의 경과보고 주력창 무주군지회장 대회사 황인홍 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축사, 국가안보 결의문체택 순으로 진행됐다.

주력창 무주군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 전우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세계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역모비 월남전에 참전해 조국의 무궁한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영광과 국민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온”라고 밝혔다.

황인홍 군수는 축사를 통해 “월남전 참전자회 삼도안보결의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안보결의대회를 통해 안보의식 한층과 회원 친목을 영원히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발전에 혁신한 공로로 무주군지회 김일남 사무장 등 3명에 대



한 대체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이화종 회장의 표창장이 수여됐다.

이들 회원들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상생발전의 위협이 되는 모든 무력 충돌이 중지 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 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한편, 삼도안보결의대회는 지난 2005년 4월 무주 전우회 주관으로 삼도봉 정상에서 처음 실시됐으며, 안보결의대회와 지역문화교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조성현 월드씨엔에스 대표, 우석대에 1천만원 전달

우석대학교 문문인 조성현(주)월드씨엔에스 대표(법정학부 00학번 경찰행정학전공)가 후배들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는 남천현 총장과 조성현 대표, 경찰행정학과 조상혁 학과장·신은식 교수 등이 참석했다.

조성현 대표는 “꿋꿋하게 꿈을 펼쳐나가는 후배들에게 다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기금을 출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남천현 총장은 “모교와 후배를 생각하는 조성현 대표의 깊은 마음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한편 사회적 기업인 월드씨엔에스는 경기도 광명시에 본사와 연구소 등을 둔 영상감시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죄악계층에 대한 기부와 고용에 앞장서고 있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 실시

남원시는 29일, 최경식 시장을 비롯 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2023~2026) 남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제5기 계획에는 지역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 교육, 문화, 예술, 교통 등 다양한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구성은 일과 삶이 조화로운 도시 남원’을 목표로 2대 전략체계, 8대 추진전략, 43개 시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8대 추진전략을 보면 손 보듬(돌봄체계), 마음 나눔(마음 공동체), 일 채움(고용환경), 배움 더함(교육,문화), 사회보장 참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구축,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등이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풀제이아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균로자 복지지원 △남원 인재학당 운영 △인기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회안전망 및 복지지각지대 예방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건강돌봄안방서비스 등이며, 사업 시행에 4년간 총 478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박주영 남원의료원장, 전북도지사 표창장 수상

남원의료원은 박주영 원장이 지난 28일 전라북도병원회가 주관하는 제43차 전라북도병원회 정기총회 및 이·추임식에서 ‘전라북도지사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의 이번 표창장은 평소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보건의료 발전과 도민건강증진에 앞장서 왔을 뿐 아니라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에 기여한 공이 인정받아 수상했다.

한편 박주영 원장은 수상소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건의료 발전과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상의 지역기반공공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군, ‘해양치유 시범 프로그램’ 운영

고창군은 지난 24일~25일 이틀동안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2022년 고창 해양치유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고창군의 해양치유 시범프로그램에는 홍보를 통해 신청한 40여명 중 선발된 가족, 연인 중심의 일반인 18명과 산림치유사, 농업치유사, 물리치료사 등 4명의 치유 전문가 등 총 22명의 참가자가 갓벌생태체험, 삼양사 암전체험, 해송 숲길 및 갓벌 노르팅워킹, 해송숲 선셋요가 & 명상, 불명치유 음악회 및 해변송다 등 총 8가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그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한 참가자는 “고창의 갓벌과 연인에서의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몸이 정화되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다.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후 10월 8일 당일 프로그램이 추가로 운영되며, 두 번의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총 12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을 위한 포럼이 11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호·영남 모범운전자 가족 체육대회

남원시 교통과(과장 김윤자)는 제35회 교통사고 줄이기 대집대회 및 호·영남 모범운전자 가족 체육대회를 29일 춘향골체육공원에서 개최했다고 번했다.

이번 대회는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전북지부(지부장 송양수)가 주최하고, 남원지회(지회장 최영배)에서 주관했으며, 전북도지사, 전북경찰청장,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장, 전북개인택시조합이사장, 남원시장, 남원경찰서장, 전북도·대구시모범운전자회 회원 및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한 14명의 유공 회원에게 표창·감사패를 수여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다양한 체육경기를 통해 전라북도·대구시모범운전자회 회원 간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교대, 대학혁신지원사업 SDGs 토크콘서트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29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ESD(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광주교육대학교 김다원 교수의 SDGs와 ESD 함께 생각하기’, 서울남영초등학교 장진아 교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D의 실제’ 주제로 진행됐다.

김다원 교수는 ESD 등장 배경과 예비 초등교원의 생태 시민성 교육을 위해 꼭 이해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했다.

이날 전주교대에 따르면 상생을 위한 사고와 생활 방식의 변화를 일깨우기 위해 SDGs와 ESD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을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병춘 총장은 “우리에게 딱친 기후 위기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에 대해 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 교육할 수 있는 초등교원 양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보건소, 구조·응급처치 교육 실시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29일 구급차 등의 운전자, 대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관리자 등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40여명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심정지가 4분 이상 지속될 경우 소생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응급상황 발생 시 최초 발발자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생존률을 높이고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은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이재백 교수가 응급활동의 원칙과 요령에 대해 이론과 실습용 마네킹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참여방식의 심폐소생술(CPR)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등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체험(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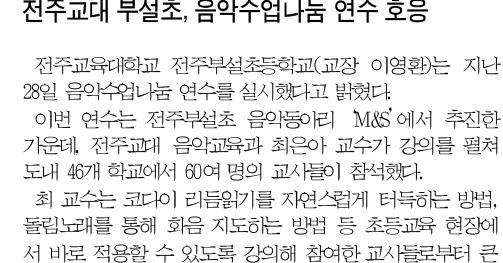
남원시농기센터, 약선음식반 현장견학 진행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는 명품농업대학 약선음식반 25명이 경북 문경시의 전통음식체험관인 모심정으로 현장견학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에서는 문경시의 대표 특산물인 오미자를 첨가한 고추장 만들기 체험 및 버섯과 산나물을 이용한 비빔밥 직접 만든 된장을 이용한 된장국 등을 시음해 보았다.

특히 오미자 고추장 만들기 체험에서는 고추장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효능, 보관 방법까지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교대 부설초, 음악수업나눔 연수 호응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부설초등학교(교장 이영환)는 지난 29일 음악수업나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전주부설초 음악동아리 M&S에서 추진한 가운데, 전주교대 음악교과 최은아 교수가 강의를 펼쳐내 46개 학교에서 60여 명의 교사들이 참석했다.

최 교수는 코다이 리듬읽기를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방법, 돌림노래를 통해 회음 지도하는 방법 등 초등교육 현장에서 비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강의해 참여한 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교사 힐링 음악동아리 ‘쎄씨봉’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우정의 노래, 푸니풀리 푸니풀리 등 디체로운 음악을 선보이기도 했다.

/정은성 기자

알림

▲정국진·엄정현 가정 3자녀 연년생 학동 생일잔치(정리 건 첫돌맞아 정려물·리회)= 일시 및 장소: 10월 1일(토) 오후 6시, 전주파티원 코델 스카이홀(전주시 완산구 흥인지로 161, 웨스트빌 5층), 연락처 : 정국진(YSP 호남·제주회장), 010-6271-0568